

비전팀 청소년 사역본부, 풍성중학교 진로의 날 행사 주관해 1100여명의 학생들과 150여명의 학부형들 함께 참여해



10월 20일(목)은 정신학원 개교기념일이어서 학교가 수업을 하지 않고 휴교했다. 그런데 마침 아산병원 옆에 위치하고 있는 풍성중학교로 상담을 나가는 주님의교회 청소년 사역본부 상담 자원봉사 성도들을 통해 이날이 풍성중학교 '진로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풍성중학교는 정신학원과 같은 큰 강당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비전팀 청소년 사역본부에서는 풍성중학교 전교생 1100명과 학부형 150여명을 정신학원 강당으로 이날 함께 초대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갖기로 계획하고 준비하며 '진로의 날'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풍성중학교 교장과 문동학 담임목사, 비전팀을 담당하는 권오승 장로가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하여 진로를 앞두고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나침반이 되는 말씀들을 들려주었다. 또한 대중가수 지누션의 노승환과 해바라기의 특송, 멘토의 힙합댄스가 있었고, 잠실고와 성덕여상을 대상으로 진로지도가 있었다.

(4면에서 계속)

당회원 기도회,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있어

지난 9월에 이어 어제 22일(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당회원 두 번째 기도회를 가졌다. 지난달에는 문동학 담임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고 당회원이 함께 읽고 나눌 세 권의 도서, <10년후 한국교회>,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미래를 담는 교회>를 선정하여 당회원 모두에게 배부하고 함께 책을 읽고 나누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어제 있었던 당회원 두 번째 기도회 시간에도 담임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부교역자들과 많은 장로들이 함께 참여하여 당회원 기도회 두 번째 시간을 가졌고 교회와 당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교우

가을 야유회가져



국내선교2위원회 장애인사역팀에서는 지난주일 오후 1시에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공원내 피크닉장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장애인교우들을 초청하여 가을 야유회를 개최했다.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한 교우들은 북2문 입구에서 고한규집사(총무)의 안내로 휠체어를 타고 또는 걸어서 피크닉장에 도착하였다. 김창안, 김태훈집사를 비롯한 10여명의 장애인사역팀원들의 봉사로 준비한 도시락과 떡과 과일로 즐거운 식사를 마친 후, 잔디밭위에서 이지화장로의 기도예 이어 이인호목사의 시편133편을 본문으로 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제목의 설교말씀이 있었고 신형섭집사(회계)의 광고와 이인호 목사의 축도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2면에서 계속)

군부대교회 사역팀, 기쁜소리찬양선교단과 함께 독수리부대 교회 방문하고 돌아와



지난주일(16일) 계학용, 성백술 장로와 군부대교회 사역팀장인 강진

식 집사, 그리고 10여명의 집사들과 오영실 권사 그리고 박의일 목사가 이혜성 집사가 단장으로 섬기는 기쁜소리찬양선교단과 함께 최전방에 있는 1사단 수색중대 독수리부대 교회를 방문하여 200여명의 군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그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격려하고 돌아왔다.

이번에 방문한 독수리부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창설된 1사단의 가장 전방에 위치하여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는 수색중대이다. 주일 오후 1시에 출발하여 부대에는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도착했고 4시 30분부터 6시가 조금 넘은 시간까지 200여명의 군인들과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찬양과 말씀과 교제 속에서 하나

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다. 이번이 함께 방문하게 된 기쁜소리찬양선교단은 이혜성 집사가 단장으로 섬기는 30여명이 속해있는 군 선교 찬양 단체로, 주일에 각자 섬기는 교회 사역을 마친후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함께 모여 많은 군부대를 방문하며 군인들에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나누고 있는 귀한 단체이다.

이번 집회에서 박의일 목사는 대하 20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면에서 계속)



군부대교회에서 날아온 편지

주님의교회 군부대교회 사역팀과 김순양 집사님, 천정희 집사님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름답게 주님을 섬겨가는 주님의교회 군부대교회 사역팀과 두 분 집사님의 가정과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배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가운데 금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분 집사님을 통해 크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집사님께서 군부대교회에 꼭 필요했던 피아노를 헌납해 하나님께 봉헌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문점 교회는 철책 안에서 수색을 담당하고 있는 독수리 부대의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도시 교회들의 섬김이 없으면 목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일들은 그래도 몇 분 되지 않는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은 전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같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낯고

부서져도 수리도 하기 어렵고, 또한 새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저희 교회에게 주님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교회 군부대교회사역팀과 귀한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통하여 교회 숙원사업 하나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희 교회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값을 길은 없지만 비록 적은 성도들이라도 열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교회와 군부대교회사역팀과 집사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납해주신 피아노는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오고가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9일

독수리교회 성도들과 강덕진 목사가 감사를 전하며

권사회 모임 가져



10월 18일(화) 권사회가 열렸다. 40여명의 권사들이 참석했는데 이창현 목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사사기 10:3-5 과 삼상 25:1의 말씀을 비교하며 사사 야일과 사무엘의 입장을 설명해 주었는데 사사 야일이 죽은 후 그에 대한 평가는 아들 30명을 낳았다는 간단한 평가이었으나 사무엘은 죽은 후에도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사였다는 것을 사무엘상하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우리의 인생도 다 끝이 있는데 그 평가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조이고 기도하며 이 시대의 「야일」이 아니라 「사무엘」이 되자고 권사들에게 권면했다. 예배후 식사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사무엘의 역할을 하는 권사로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자고 다짐했다.

사도행전 강해, 영적 전쟁과 다윗의 장막



영적 전쟁을 주제로 하는 양육클래스 과정이 1학기 여호수아 강해에 이어 2학기 사도행전 강

해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사는 박의일 목사이다. 영적 전쟁과 다윗의 장막(사도행전 강해) 과목

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5층 찬양연습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첫 시간에 30여명 함께 시작했던 클래스가 현재 70명의 성도가 신청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타교회 성도들도 몇명 포함되어 있다.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만지심을 느끼며 클래스에 기쁘게 참여하고 있다. 이 복되고 귀한 양육의 자리에 관심있는 많은 성도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초대한다.

함즐함울 문예지 발간 예정

매주일 나오는 함즐함울에 다 신지 못하는 성도들의 간증, 수필, 시 등을 모아 함즐함울 문예지 별책을 만들려 합니다.

글을 내 주실 성도는 4층 교역자실 간사에게 교구 구역과 이름, 연락처와 원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고는 E-MAIL로 주시면 편집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예지 발간은 글이 모이는 대로 11월 추수감사주일이나 12월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면에 이어서)

군부대교회 사역팀, 기쁜소리찬양선교단과 함께 독수리부대 교회 방문하고 돌아와



말씀을 통해 군인들에게 비록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고단한 군복무의 시간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있고 군복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전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면서 군복무를 하는 바로 그곳에서 어느 때보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며 격려하는 힘있는 설교를 했다. 군부대교회 사역팀에서는 햄버거와 음료수 400인분을 준비하여 군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돌아왔다.

(1면에 이어서)

장애인교우 가을 야유회가져

35명이 참석하여 백제시대의 유적과 현대적 감각의 경기장들이 공

존하면서 숲과 잔디가 아름다운 올림픽공원에서 가을의 한순간을 함께 지냈는데, "오랫동안 추억에 남을 것 같다"는 한교회집사의 소감이 있었고, 박영호집사 가족을 비롯한 몇몇 교우들은 계속 남아서 청명한 가을을 지냈다. 연말 송년모임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가을 야유회는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2여선교회

1박 2일로 설악산 나들이 다녀와



10월 13일 목요일 모두 12명의 2여선교회 회원들은 2대의 차량에 나눠타고 설악산으로 향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의 품에 안겨 산책하기도 하고 찬송 부르기도 하고 산상 기도도 하며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설악산을 잘 구경하고 화진포 해수욕장에 있는 김일성 별장과 이기봉 별장을 답사한후 간단한 소양 교육후 통일 전망대로 향했다. 저 멀리 금강산과 해금강을 바라보며 우리의 산하지만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그 곳을 눈에 꼭꼭찍고 발길을 돌려 거진항에서 싱싱한 회로 늦은 점심을 먹은 후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귀가길에 올랐다.

PTP에서 받은 은혜(3) / 간증문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



지난 봄, 같은 구역 집사님들이 PTP에 가자고 했을 때, 사실 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도 벅차고 힘들었던지라, 자녀교육에 대해 이미 책도 많이 읽어보았고, 강좌에도 여러 번 참석해 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PTP 역시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 하나 더 얻는 시간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PTP에 나온 후 아주 더딘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TP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PTP에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습니다. 따끈한 차와 맛있는 간식으로 참석자들을 챙기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의 푸근한 섬김,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엄마들이 PTP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아주시는 전도사님들의 숨은 섬김이 있어 PTP는 참으로 따뜻합니다. 기도회의 처음순서인 찬양시간은 전도사님들의 진솔하고, 은혜로운 인도에 맞춰 찬양하는 사이 마음은 벌써 뜨거워집니다. 그 위에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감격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홍민기 목사님의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회개와 기쁨이 넘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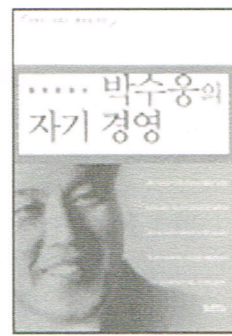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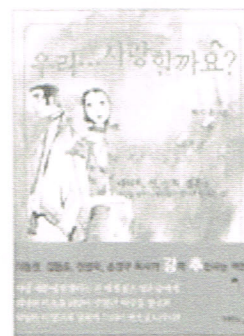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내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키우기를 다짐하며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로 PTP는 절정에 이릅니다. 또 내 자녀 또래의 엄마들과 고민을 나누고, 친교를 다지는 교제를 통해 PTP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PTP에는 섬김, 찬양, 말씀, 기도 그리고 교제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이 변하기 어려운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제가 먼저 회복되다 보니,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훨씬 여유롭고 편안해졌습니다. 이 변화의 감격을 “와 보라”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박윤정 집사

두 번째 청년 특별 집회 시리즈

영원한 청년 박수웅 장로 초청 집회



던진 영원한 청년이라 불리우는 박수웅 장로가 초청되었다. 특히 청소년, 청년들의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세미나의 전문 강사로 ‘우리 사랑할까요?’라는 책도 출판한 박수웅 장로의 특별 세미나가 청년 예배 후 이어진다. 오후 1

시 30분 청년 예배에서는 비전에 대한 말씀을 예배 후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특강을 하게 된다.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참여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11월에는 영화 ‘미션 바라바’의 3인의 주인공 중 한사람인 나까지마 테츠오 목사가 강사로 초청된다. 야쿠자에서 아내의 기도로 목사가 되기까지 이제 선교의 열정으로 세계를 섬기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도전과 간증을 함께 나누게 된다.

‘그들이 온다’ 시리즈 집회로 12월까지 매월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특별 집회를 갖고 있는 청년 공동체에서는 지난 9월 다큐멘터리 ‘팔복’의 제작자인 김우현 감독을 초청하여 그의 두 번째 다큐물인 ‘애 통하는 자’를 함께 보고 김우현 감독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10월에는 전세계의 유학생, 교포 청년들에게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6기 중보기도세미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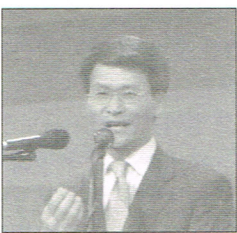
보기도사역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27일(목)은 오후 7시부터 10시



중보기도사역팀에서는 10월 27일(목)과 29일(토)에 6기 중보기도세미나를 엽니다. 이 세미나는 중보기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중보기도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고, 중

보기도사역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27일(목)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29일(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층 3집회실에서 강의를 이루어집니다. 구역모임에 지장이 없도록 금요일 저녁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강의내용은 중보기도사역,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 등입니다. 이 세미나를 수료한 후에, 중보기도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받습니다.

길가에교회 비전



길가에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과 나누는 삶을 위해 부름 받은 주님의교회 정신을 이어가며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계획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응답해 갈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로 아름답고 정겨운 주님의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며 애쓸 것입니다.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며 굳었던 얼굴에 미소가 번지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가득 채워가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여라

“앎”이 “삶”이 되도록 배운 말씀을 겸손히 삶 속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생명의 향기가 삶을 통해 이웃에 베이게 하므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들이 많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 향기가 땅 끝까지 퍼져 나가도록 구체적인 응답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도자를 키우라

청소년들, 특별히 동화중고등학생들을 힘

닿는 데까지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심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이를 위한 어와나, 청장년들을 위한 리더훈련, 목회자들을 위한 리더십센터 등을 마련하여 크리스천리더십을 키워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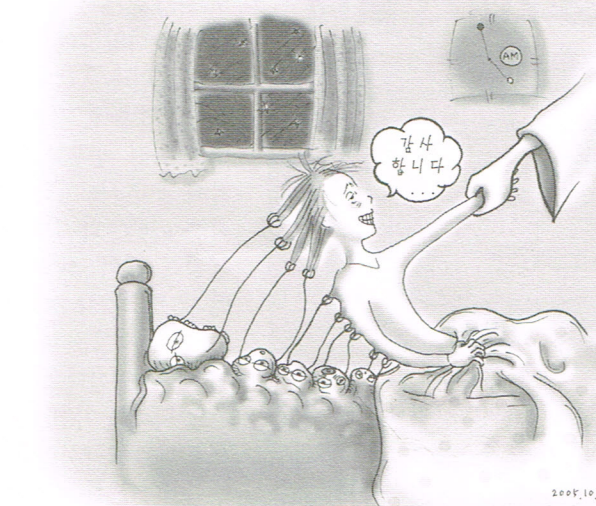
교회를 세우라

힘주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팽창이 아니라 번식하는 교회의 정신을 가슴에 깊이 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러져가는 교회를 부흥하며 제 발로 설 수 있도록 그들 곁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청소하실 분, 주차안내하실 분, 안내하실 분, 화단 가꾸실 분, 성가지휘하실 분, 반주하실 분, 교사로 봉사하실 분, 찬양으로 봉사하실 분, 사무실에서 봉사하실 분, 그림·글씨·디자인으로 봉사하실 분, 소그룹 리더하실 분, 각종 상담하실 분, 커피와 동글레차를 타실 분, 어린이 축구팀을 섬길 분, 국수 국물을 만드실 분, 탁자를 닦으실 분, 인터넷홈페이지 관리하실 분, 음향·영상을 맡으실 분, 녹음하실 분, 동화중고등학교 기도어머니 하실 분, 중보기도하실 분, 새식구 환영하실 분, 양육하실 분, 아기와 놀아주실 분, 휠체어 밀어주실 분, 의자 정리하실 분, 교회신문 “길가에서”(가칭) 만드실 분, 사진 찍어주실 분 그리고 부담 없이 설 분 등 누구나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



주님께 구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옵소서.

해외선교사 기도제목

선교사	기도제목
금상호 (코스타리카)	1.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지바에 다녀올 때 평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2. 어떤 형태로든 선교센타 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3.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성령 충만을 위해
백경숙 (러시아)	1. 연해주 농아인 지도자가 계속 배출되어 농아인 선교에 활력이 있게 하소서 2. 교회에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사를 보내 주시도록 3. 넓은 교회 장소를 주시도록
고명수 (남아프리카)	1. 강도 침입으로 다치셨습니다. 주의 회복하심이 있도록 2. 다음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3. 현지 마자카님 교회가 견고케 되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Y.Y.Y (A국)	1. 훈련되어지고 있는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도록 2. 신학생들이 경제적인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자립할 수 있도록 3. 안전을 위해 4. 불 같은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
S.K.R (A국)	1. 매월 시행하는 지도자 양육 모임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2. 가정교회 안에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주시도록 3. 11월부터 한쪽 지도자 양육이 시작되는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매월 강의가 끝나면 약2-3일간 편두통으로 고생합니다)
최용하 (미국)	1. 대학생사역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 열매들을 통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열매를 맺도록 2. 목요정기모임을 통해 유학생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분께 순종의 삶을 드리도록 3. 가정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모임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성민 (캄보디아)	1. 현지 사역자들의 성령충만을 위해 2. 청년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을 위해
O.C.Y (S국)	1. 중국어에 대한 진보가 있도록 2. 2기 사역에 대한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3. 아내의 건강을 위해(혈관종양) - 모든 백혈구의 수치를 주장하시도록
K.U.Z (N국)	1. 개성공단에 개설된 개성병원을 통해 사막과 같은 그 곳에 꽃이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2. 북한근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도록 3. 모든 위험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소금밭교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제3세계 근로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돕고, 격려하도록

영아부



11월과 12월의 중점적인 계획은 2006년에 진급하는 아기들이 유아부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엄마와 떨어지기 훈련'을 하는 것이다. 대상은 내년에 4세가 되는 대략 2003년 전후 출생 아기들이다.

아기들의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평소 가정에서 엄마와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인정받는 심리 상태로 뒷받침 되면 좋겠다.

하지만 엄마가 직장이 있는 경우, 또는 아기의 출생 초 입원과 같은 상황 등으로 엄마와 떨어진 경우라면 불안을 더 느끼는 경우가 있으나, 아기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신뢰하며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어야 한다(중요한 부분). 엄마와 떨어지기 훈련을 위해 영아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마들께 부탁드립니다.

첫째, 주일날 되도록 빠지지 말것. 아기들은 한 주일을 빠지면 예배실의 분위기에 낯설어 진다.

둘째, 주중에 교육을 시킬 것.

떨어짐이 아니라 엄마가 곧 돌아올 것임을 확신시켜 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셋째, 선생님의 얼굴을 아기가 잘 익힐수 있도록 선생님과의 친해질 것.

넷째, 그래도 안되면, 아기가 준비 될 때까지 아기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이미 엄마와 잘 떨어지는 아기들도 12월이 되면, 영아부 예배 후에 유아부실에 들려서 '발 들여 놓기, 벽 만지기, 장남감 타 보기, 선생님 인사하기' 등으로 새로운 유아부 예배실 분위기에 적응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SIRES 2005 열려



05년 서울국제외식산업·식품·주방기기전시회가 11월 3일(목)부터 11월 6일(주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삼성동 코엑스 1층 대평양홀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기간 동안 전시되는

품목은 국제적인 레스토랑, 농·축·수산물 식자재, 주방기기, 먹거리 시식, 관련 서적 등 다양하며, 행사 기간 4일간 외식산업 발전과 프랜차이즈 기업 성공사례, 급식산업 발전 방안, 와인 세미나 컨설팅을 위해 국내외 유명 강사를 모시고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또한 매일 각종 이벤트와 경품 추첨 행사로 공기청정기, 해외·국의 여행권, 식자재, 호텔 및 레스토랑 시식권, 가전제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식품을 참관인들께 증정한다.

본 전시회는 이영남 권사가 조직위원장으로 섬기는 행사이다. 입장권은 교회사무실이나 본관 로비에 비치할 예정이므로 관심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1면에 이어서)

비전팀 청소년 사역본부, 풍성중학교 진로의 날 행사 주관해



풍성중학교 임원인 김윤환과 홍소정 학생이 이번 행사의 사회를 보았는데 중학생 아이들에게 외국어의 도전을 주기위해 영어통역과 중국어 통역, 일본어 통역을 함께 병행하는 세심한 배려와 기획도 있었다.

행사는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었고 참여한 모든 학생

과 학부모들에게는 빵과 음료수가 제공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풍성중학교 학생들에게 '진로'와 '인생'에 관한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심어지고 무엇보다 복음이 심어지는 좋은 기회와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한다. 이번 행사는 주님의교회 주변의 대강당이 없는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하여 청소년들의 생각을 바르게 정립해주고 청소년들을 돕는 첫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앞으로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로 헌신하실 분은 상담전문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문의: 송경혜 권사 011-770-9101, 이종은 권사 011-9638-8719).